

	보도참고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반도체전기과
		담당자	최민구 과장 이진광 사무관
		전화	2110-5683

< PC통신 : go opengo, 천리안 go epic, 인터넷 : <http://www.mocie.go.kr>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동반성장 원년으로

- CVD, Etcher 등 前공정장비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향후 5년 내 5배 이상으로 제고(8%→30% 이상) -

□ 최근 반도체·LCD 세계시장의 19%, 15% 고성장 전망으로 설비투자가 본격화함에 따라, 제조장비 및 공정재료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도, 반도체·LCD는 향후 수년간 100조원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중

- 반도체부문 : 삼성 70조원, 동부아남 1.3조원
- LCD부문 : 삼성 20조원, LG필립스 12조원

- 고집적 나노급 반도체시장과 대형 화면의 LCD시장이 형성되면서 장비와 재료시장도 기술면과 시장규모 등에서 큰 변화를 맞이함
- 장비산업은 AMAT(美), TEL(日), ASML(和) 등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전문업체가 LCD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다각화하는 추세
- 재료산업은 LCD 글라스 크기가 커지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SKC, LG화학, 제일모직 등 대기업의 시장진입도 활발
- 중국의 반도체 장비시장 급성장, 대만의 LCD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이 진전되고 있지만,
 - 최근에는 선발업체들이 국내업체들에게 국내외에서 특허분쟁을 제기하여 시장진입 봉쇄를 기도하는 사례도 발생

□ 국내 장비·재료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수입대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저조한 실정
 -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16%,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8% 수준에 불과
 - LCD 제조장비 35%, PDP 제조장비 40% 수준에 그침
- 기술력이 점차 진전되고 있으나 특허공세로 어려움이 가중
 - 재료부문(웨이퍼, 포토레지스트)과 장비부문(세정, 박막증착)에서 착실히 경쟁력을 갖추가고 있으나,
 - AMAT(美), TEL(日) 등은 국내업체의 성장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허공세를 펼침으로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
 - ※ 3건의 특허소송과 3건의 특허침해 경고가 발생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장비·재료 전문기업이 전무
 - 제조장비의 경우 AMAT(美) 6조원, TEL(日) 3조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업체는 KDNS(1,300억원), 케이씨텍(575억원), 주성(300억원) 수준에 그쳐 50~100분의 1의 영세한 수준
- 신뢰성과 계열화 문제가 장비·재료의 일류화에 장애
 - 국내 납품실적이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생 국내업체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판로 개척도 곤란
 - 수요기업별로 장비·재료 구매선이 계열화되는 경향이 있어 시장이 분산되고 실질 경쟁은 제한되어 경쟁력 있는 전문업체의 성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

- 산업자원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고성장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삼고 국내 장비·재료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수 장비·재료 전문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① 장비·재료산업의 발전 인프라 구축

- 나노기술을 접목시켜 장비·재료산업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나노기술집적센터” 2개소를 구축, 산업화 지원 역점
- ※ 사업기간 : '04~'08, 사업비 : 1,800억원(정부 900억원, '04년 100억원)

② 차세대 장비·재료 연구개발 지원

- 차세대성장동력으로 “CVD(박막공정장비) 핵심부분품 개발”을 '04년 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시스템IC-2010사업(산자부·과기부 공동)의 지원규모 40%를 장비·재료분야에 투입
-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에 금년도 처음으로 “반도체·LCD용 장비”를 포함하여 수요기업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 ※ '04년도 70억원 지원

③ 장비·재료산업의 수출 마케팅능력 확충

- 국책연구기관의 장비구매시 장비구매 계획과 사양을 미리 공개해서 국내 장비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여 지원으로 해외마케팅을 강화

④ 장비·재료기업 육성을 위한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

- 수요대기업이 중소 장비·재료업체와 일정한 조건 하에 납품을 보장해주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금융회사는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기반으로 자산담보부증권(CBO)를 발행하여, 일반투자가와 대기업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

※ 펀드운용 : 외국계 투자은행 (JP Morgan, CSFB등)

※ 대상기업 선정('04.5)→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간 MOU 체결→펀드모집('04.7)

※ 총 1조원(1차분으로 3천억원 내외 조성)

⑤ 반도체장비 특허 컨소시움 구성 추진

- 선진기업의 특허공제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허분석과 전략수립 : 필요 경비의 1/3 수준 지원, 도출된 기술과제는 산·학·연 공동개발

⑥ 내수시장을 활용한 對日 투자유치

-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고성장 수요시장을 활용하여 對日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Japan Desk 설치 '03.2)

<참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산업 육성대책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산업 육성대책

2004. 3.

산 업 자 원 부

< 목 차 >

1. 특징 및 중요성	1
2. 세계시장 동향	2
3. 현황 및 문제점	4
4. 종합 대책	8

<참고> 수급기업 투자펀드 발행 구조도

1. 특징 및 중요성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다단계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제품

- 반도체 : 웨이퍼 가공(사진→식각→확산→증착)→조립·검사,
LCD : Glass 가공(사진→식각→증착)→Cell·모듈 조립→검사
- 각 단위 공정에 소요되는 제조장비와 재료가 다양하며
제조원가에서 장비·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장비 : Stepper(사진), Etcher(식각), Implanter(확산), CVD(증착)
재료 : 웨이퍼·마스크·리드프레임(반도체), 컬러필터·글래스·편광판(LCD)
 - 반도체 제조원가에서 감가상각비 41%, 재료비 25%, 인건비 14%,
LCD 제조원가에서 재료비 70%, 감가상각비 19%, 인건비 4%

□ 장비·재료는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 선행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달성
 - 300mm 웨이퍼 가공 장비 도입으로 생산성 2.25배, 원가절감 30%
 - 디스플레이 대화면 추세로 6~7세대 대형 제조장비를 도입
- 재료 특성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집적도·生産收率을 좌우
 - 高순도·高정밀 재료가 등장하면서 제품 성능·신뢰도가 향상
-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기 때문에 장비·재료의 발달이 휴대폰·디지털TV 등 세트산업의 발전을 견인

2. 세계시장 동향

- 반도체·LCD 세계시장이 매년 두 자리수의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출처 : WSTS, 전자저널, 단위 : 억불)

	반도체전체	非메모리	메모리	LCD
2002년	1,404	1134	270	265
2003년	1,607	1,290	317	320
2004년	1,918	1,509	409	368

- 제조장비는 Stepper(노광), CVD(박막증착), Etcher(식각)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 규모가 LCD에 비해 7~8배 수준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	2005	비중('04)
반도체장비	24,587	19,504	23,941	35,547	41,373	Stepper 18.6% CVD 17.6% Dry Etch 16.4%
LCD장비	2,029	2,858	3,440	4,099	2,707	CVD 24.8% Dry Etch 14.5% Clean 8.8%

- 반도체 재료는 웨이퍼, 마스크 LCD 재료는 컬러필터, 유리 기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 반도체 재료시장 규모가 LCD에 비해 2배 수준

(단위 :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	2005	비중('04)
반도체재료	17,669	18,270	20,468	22,299	23,506	Si웨이퍼 29.8% 마스크 8.7% 리드프레임 8.6%
LCD재료	5,474	6,638	8,094	9,200	10,068	컬러필터 23.3% Glass 20.6% 백라이트 16.7%

□ 반도체·LCD의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수주경쟁이 치열

- 고집적 반도체 생산을 위해 300mm 웨이퍼 가공, 90nm 공정기술을 채택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재료 시장이 확대**
- AMAT(美), TEL(日), ASML(和) 등 장비업체 상위 10개사 시장점유율이 '02년 80%, '03년 70%로 **과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
 - ※ 국가별 점유율 : 미국 50%, 일본 36%, 네덜란드 11%
- **대화면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LCD 산업도 대형 Glass 가공을 위한 6~7세대 **제조장비 및 고기능성 재료시장**이 빠르게 형성
- 선도 장비업체들은 반도체 위주에서 벗어나, **LCD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이며 TEL(日)의 경우 매출이 급신장
- Glass 크기가 커지면서 **전자재료시장**이 팽창하고 있으며 SKC, 제일모직, LG화학 등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두드러짐
 - ※ LCD배향막[제일모직], LCD광학필름[SKC·코오롱], LCD편광판[LG화학]
- '01년 115%, '02년 82% 증가 등 중국 반도체 장비시장 급성장으로 국내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 대만이 전세계 LCD 설비투자의 50%에 달하고 있어 장비·재료업계의 **대만시장 진출도** 진전
 - ※ 대형 TFT-LCD 업체수 : 한국 3, 대만 6, 일본 1, 중국 1
- 최근 후발 장비업체가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급성장함에 따라, 위협을 느낀 선발업체들이 **특허분쟁 제기**(소송 3건, 경고 3건)를 통해 시장진입 봉쇄를 기도

3. 현황 및 문제점

가. 꾸준한 수입대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율이 저조한 실정

□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16%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8% 수준에 불과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경우도 LCD 제조장비 35%, PDP 제조장비 40% 수준에 그침

- 국산장비는 CVD(증착), Wet Station(세정) 등 일부 前공정 장비와 Molding M/C(외형), Bonder(연결), Handler(검사) 등 조립·검사장비로 제한

- Stepper, Track, Etcher, Sputter, CVD 등 주요 前공정장비 및 검사장비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수입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 현황>

(출처 : KSIA, 단위 : 백만불 / %)

구 분	2002			2003(F)		
	국내수요	국내생산	국산화율	국내수요	국내생산	국산화율
전공정 장비	1,338	98	7.3%	1,479	115	7.8%
조립용 장비	128	48	37.5%	160	65	40.6%
검사용/기타	420	138	32.8%	510	156	30.6%
합 계	1,886	284	15.1%	2,149	336	15.6%

□ 반도체, LCD분야 재료의 국산화율은 각각 65%, 40%이지만, 제조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높은 LCD의 경우는 미흡

- '80년대 중반부터 조립용 재료인 Molding Compound를 시작으로 실리콘웨이퍼, 리드프레임, 본딩와이어 등을 생산
- '90년대에 이르면서 반도체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재료 수요가 증가하였고 기술이 축적되면서 성장기반을 마련
- 포토마스크, 포토레지스트, 케미칼, 특수가스 등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재료는 주로 선진국과 합작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한편, LCD 액정재료는 獨 머크社로부터 전량 수입('04년 3,000억원)

(단위 : 백만불)

	2002년			2003년(E)		
	생산	수입	계	생산	수입	계
공정재료	617	378	995	620	394	1,014
조립재료	561	265	826	566	314	880
합계	1,178	643	1,821	1,186	708	1,894

나. 기술력이 진전되고 있으나 특허공세로 어려움이 가중

□ 반도체 재료부문(웨이퍼, 포토레지스트)은 세계 10위권 진입

-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LCD 재료부문에서도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동진세미켐, 테크노세미켐, PKL 등 반도체 재료회사들이 LCD 재료부문으로 진출하여 매출을 증대

□ 반도체 장비부문(세정, 박막증착, 에칭 등)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중

- 주성엔지니어링은 300mm용 원자층 증착 장치인 ALD를 선행개발 하여 대만은 물론 국내 최초로 일본 반도체업체(도시바)에 수출
- LCD 장비업체들은 검사·세정 등의 국산화에 이어 플라즈마 화학증착기(PECVD), 드라이에처, 코터 등을 자체 개발

□ AMAT(美), TEL(日) 등은 국내업체의 성장가능성을 차단 하기 위해 특허공세를 펼침으로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

- 최근 3건의 특허소송이 발생하여 법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으며, 3건의 특허침해 경고도 발생

다. 반도체·LCD는 세계1위, 국내 장비·재료업체는 50위 밖

□ 국내 업체가 DRAM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45%('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TFT-LCD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45%('02년 기준) 차지하고 있으나,

- 세계 순위 50위권 이내 국내 장비업체는 전무하며 국내 재료업체는 20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제조장비의 경우 AMAT(美) 6조원, TEL(日) 3조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업체는 KDNS(1,300억원), 케이씨텍(575억원), 주성(300억원) 수준에 그쳐 50~100분의 1의 영세한 수준

- 기업규모가 국제규모에 미달하고 모기업과 납품업체간 협력 분위기도 미흡

구 분	비교기업		비교 항목		
	국내 기업	선두 기업	매출	인력	자본
장 비	KDNS	AMAT(美)	1/47	1/25	1/102
재 료	LG실트론	신에츠(日)	1/6	1/1.3	1/3

라. 신뢰성과 계열화 문제가 장비·재료의 일류화에 장애

☐ 개발된 장비·재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판로 확보가 애로사항

-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는 조기에 안정적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당장」의 일류장비와 일류재료를 선택
 - 기술력과 영업력이 앞선 미국과 일본의 제품을 우선 고려
- 국내 납품실적이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생 국내업체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판로 개척도 곤란

☐ 구매선이 계열화되는 경향이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 국내산 장비와 재료를 선택할 경우, 수요 대기업별로 거래처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경쟁사 납품업체를 배척
 - 시장이 분산되고 거래처의 선택이 「기술력」보다 자본, 친소관계 등 「제3의 요소」에 의존하는 등 세계적 전문 부품업체의 성장에 불리한 환경 조성

4. 종합 대책

가. 장비·재료산업 발전인프라 구축

☐ 나노기술을 접목시켜 장비·재료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

-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장비·재료산업 취약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분야에 나노기술의 최종 응용을 유도함으로써,
- 장비·재료산업이 직면한 기술적 난제에 대해 혁신적 돌파구와 해결책을 마련하고
- 나노 수준의 수요가 형성되면서 기술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장비·재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진출

☐ '나노기술집적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장비·재료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

- 사업목표 : 연구개발부터 산업화지원까지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핵심 연구장비를 갖춘 나노기술집적센터를 구축
- 사업기간 : 2004 ~ 2008(5년)
- 사업주관 : (나노소재·재료) 1개기관, (나노공정·장비) 1개기관
- 총 사업비 : 1,800억원(정부 900억원, 민간 900억원)
 - ※ '04년 정부 예산 100억원
- 추진일정 : 사업공고(4월초순)→사업자평가·선정(6월중순)

나. 차세대 장비·재료의 연구개발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개발 과제로 반도체장비분야를 선정하여 산학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수입대체를 적극 추진

- 금년부터 “박막 공정장비(CVD)용 핵심부분품 개발”을 추진하고,
- 향후 “나노공정용 플라즈마 장치 및 소스 개발”, “고속 반도체 테스트팅 기술 및 장비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부품·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의 범위에 “반도체·LCD용 장비·재료”도 신규로 포함하여 시장성 높은 기술을 개발

- 반도체·LCD 분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차 대상을 선정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수요기업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 ‘04년 70억(전자장비), 90억원(전자소재) 정부지원

- 1차 대상 장비 : PECVD, ALD, LCD용 Track, LCD sputtering, 반도체 ArF용 Track, LCD용 dry Etcher

- 1차 대상 재료 : 기판소재, 반도체공정용 소재, 필름쉬트

☐ 시스템IC-2010사업 지원규모의 40%를 장비·재료 개발에 투입

- 반도체장비는 차세대 공정용으로 Etcher(주성), ALD(IPS), Asher(뉴파워), RTP(코닉) 등을 개발 중이며, 반도체재료는 Blank Mask(S&S), CMP 재료(SKC)를 개발 중

다. 장비·재료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 국책연구기관의 장비구매시 국내 장비업체 참여기회 확대
 - 국책연구기관의 장비구매 계획과 사양을 구매입찰 전에 미리 공개해서 국내장비업체가 준비토록 하여 공급가능성을 제고
 - ※ 동 조치만으로 광주 광기술원의 경우 국산장비 구매비율이 19% → 37%로 대폭 향상
-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여 지원을 통해 신홍시장 진출 도모
 - SEMICON(중국, 대만) 등에 시장개척단(협회 중심)을 파견하고 SEDEX(서울)에서 국내산 장비·재료 신제품의 마케팅을 강화
- B2B 사업을 통해 물류 프로세스 단축 및 원가절감 달성
 - 반도체 장비업체(모기업)과 부품공급업체(협력사)간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구축
 - ※ 호서대를 주관으로 하여 '04~'05년 동안 16억원을 투입할 예정
-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역관세 현상 시정 및 수입 대체 촉진
 - 반도체재료('03) : 기존3개+신규1개(석영유리기판)
 - 디스플레이재료('03) : 기존 3개+신규1개(유기EL전용유리)
- 판교 반도체집적단지 조성 추진
 - 건교부의 “판교계획도시 벤처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장비, 재료, 설계회사 등이 입주하도록 집적단지를 조성
 - ※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을 설립, 마스트플랜 수립(8월)
 - 분양면적, 분양가격 등 현안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

라. 장비·재료기업 육성을 위한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

□ 반도체·LCD는 향후 수년간 10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중

※ 반도체(삼성 70조원, 동부이남 1.3조원), LCD(삼성 20조원, LG필립스 12조원)

□ 그러나, 장비·재료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 납품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부족 등으로 경쟁 규모에 미달하고 있으며,

※ Top 장비기업 : AMAT(美) 6조원, TEL(日) 3조원

※ 국내 장비기업 : KDNS(1,000억원), 케이씨텍(575억원), 주성(300억원)

○ 이번 기회에 장비·재료 업체들이 동반 성장하지 못할 경우, 향후 대규모 투자는 '외국 기업들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 농후

※ 반도체 前공정장비 국산화율(9%), LCD 장비 국산화율(30% 내외)

□ 수요기업·금융기관·정부 등이 참여하는 수급기업 Fund를 조성, 반도체·LCD 장비·재료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적극 지원

▶ 조성규모 : 1조원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

▶ 투자자 : 수요대기업, 은행, 벤처캐피탈, 정부, 국제 장기자본시장 등
- 특히 수요대기업은 장비·재료 개발시 구매확약 또는 협력양해각서 제공

▶ 투자대상 : 반도체·LCD 장비 및 소재 기업의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근거한 CBO(자산담보부 증권)

- 투자대상 장비·소재기업은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5~7개사를 선정

▶ 펀드 운용 : 외국계 투자은행(JP Morgan, CSFB 등)

▶ 기타사항 : 보증(신보, 기보), 기술지원(전품연 등 공공연구기관)

마. 반도체장비 특허 권소시움 구성 추진

- 최근 선진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화 초기단계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을 제기하는 추세**
 - 특히, 국내 장비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위협을 느낀 AMAT(美), TEL(日) 등 선도기업들이 특허분쟁 제기를 통해 국내 업체의 시장진입 봉쇄를 기도
- 개별기업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므로 특허 권소시움 구성과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
 - 특허 분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1/3 이내)
 - 특허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기술과제는 산·학·연 권소시움을 통해 개발 추진

<특허분쟁 사례>

- | |
|--|
| ① TEL(日) → A社(韓)
: 트랙장비 특허 3건 침해 가처분 신청('02.8) → 화해 진행중 |
| ② MJC(日) → 솔트론(韓)
: '03.5 무효심판 청구
: '03.8 테스트 장치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 기각('03.11) |
| ③ AMAT(美) → 주성(韓)
: '04.1 대만에서 PECVD 장비 특허침해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방해로 AMAT를 공정위 제소, '04.3 주성이 가처분 무혐의 획득
: 한국에서 주성이 AMAT에게 특허 공격을 검토 중 |
| ④ TEL(日) → B社(韓)
: 특허침해 경고 |
| ⑤ 시바우라, TEL(日) → C社(韓)
: 특허침해 경고 |
| ⑥ MJCCA(美) → D社(韓)
: 특허침해 경고 |

바. 내수시장을 활용한 對日 투자 유치

□ 수요기업 주도형 장비·재료 투자유치 전략을 지속 추진

- 대규모 수요시장이 형성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삼성, LG 등 수요대기업이 주도하는 투자유치 전략이 효과적
- '04년에도 수요기업 참여 하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예정
- 'Japan Desk'를 설치('03.2)하여 컨설팅사, 법무법인, 투자 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의 투자유망 기업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 최근 일본 기업의 한국진출 현황

업체	투자규모(완료시기)	주력 생산제품	위치
스미토모 화학	5,500억원('04년)	컬러필터	경기 포승
JSR	3,000억원('07년)	컬러레지스트	충북 오창
해리슨 도시바라이팅	600억원('05년)	CCFL	충북 오창
닛산화학	150억원('03년)	배향막	경기 추팔
NEG	7천만불	LCD 글라스	경기 파주 (MOU 체결)
ULVAC	2천만불('05년)	Sputter	경기 평택 (MOU 체결)
호야	7천만불	포토마스크	경기 평택 (LOI 체결)
치소	2천만불('05년)	LCD 액정	경기 파주 (LOI 체결)

<참고> 수급기업 투자펀드 발행 구조도

